

고시인성(高視認性) 면 혼방제품

최근 일본의 면 방직업체는 고시인성 염색제품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존에는 폴리에스터 등 합섬섬유 소재가 주류였지만, 일본의 면 방직업체가 면 혼방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범용성을 높이고 플러스 α 의 기능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합섬섬유 100 % 소재가 주류였지만, 여름소재로 폴리에스터/면 혼방 등의 면 혼방품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어 일본의 면 방직업체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작업복의 주요 소재인 폴리에스터/면(65/35) 소재가 국제표준 「ISO 20471 : 2013 High visibility clothing - Test methods and requirements」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라보(Kurabo)와 시키보(Shikibo)가 이러한 고시인성 염색소재를 출시하였으며, 니신보(Nisshinbo)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여 차별화하고 있다.

선두업체인 쿠라보(Kurabo)는 "퓨처(Future)" 브랜드를 제안하고 있으며, 아크릴계/면 섬유 복합 난연소재 "브레바노(Brevano)"에 고시인성 염색기술을 적용하였다. 국제표준(ISO)에서는 고시인성 염색소재의 용도로 도로작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공항 등 연료를 취급하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에는 난연소재의 수요도 높다. 따라서, 난연소재에 고시인성 염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용도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시키보(Shikibo)도 최근 고시인성 염색제품 "신염조(新染組)"를 출시하였다. 이 회사의 경우 통기성 직·편물 "아제크(Azek)"에도 고시인성 염색기술을 적용하였다. 도로작업의 경우 여름의 찌는 듯한 날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작업에 이러한 고통기성 의류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고통기성 소재에 고시인성 염색기술이 실현됨에 따라 여름철 의류로서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또한 모자나 양말, 가방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고시인성 소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인성 염색소재는 합섬업체에서도 중점적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으며, 도레이(Toray)의 '브레인 스타(BRIANSTAR™)', 유니티카 트레이딩(Unitika trading)의 '프로텍사-HV(Protexa-HV)' 등 유니폼 소재로서 전개되고 있다.

합섬섬유에 비해 면 섬유의 고시인성 염색의 염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 섬유의 장점인 보습성과 피부에 좋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플러스 α 의 전략으로 합섬섬유 제품과 차별화하고 있다.

♣ 섬유뉴스 (2014. 11. 4)